

'진짜 방역은 지금부터'

군산시 부시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현장 점검 실시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은 2일 군산시 관내 요양보호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찾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방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본방역수칙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방역수칙을 안내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황 부시장은 "영업시간 규제완화와 계절적요인, 연말연시 사적모임 등 감염위험요인의 증가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서는 안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공통적인 방역수칙의 생각을 의미하는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실내환기 등 개인방역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자칫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돼 부서별 방역점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완화(12명)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시행 후 2주간 이행사항을 평가해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6.25 참전 유공자 무성화랑 무공훈장 전수

신병섭 참전용사, 71년만에 훈장증·기념패 전달

군산시는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신병섭(91) 참전용사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훈장 전수식에서는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강입준 군산시장이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다.

무공훈장은 지난 2019년부터 육군본부에서 추진 중인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여됐으며,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운동에 거주하는 신 참전용사는 제보병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장에서 헌신 분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60년 12월 30일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시의 혼란상황이 이어지던



군산시는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신병섭(91) 참전용사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수여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과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협력으로 최근 신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71년만에 본인에게 훈장이 전해졌다.

신병섭 참전용사는 무공훈장을 전수 받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원대한 꿈!

원광대에서 원대로 이루자!

원광대 대표 국가대표 선수 서승재 (상봉초등학교 / 체육교과과 16)

2022학년도 정시모집 → 2021. 12. 30.(목) ~ 2022. 01. 03.(월)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2021. 11. 09.(화) ~ 2021. 11. 15.(월)

2022학년도 학부신입생 특별혜택

- 통학 버스 무료**: 전 노선 신입생 1년간 무료 (서울, 대전, 개령, 논산, 전주, 군산, 김제, 정읍, 부안)
- 기숙사 합격 보장**: 기숙사 입사 희망 신입생 우선배정 (기숙사 10개동, 3,737명 수용가능, *2020대학정보공시)
- 최초 합격자 50만원**: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첫 학기 수업료 50만원 지급 (군사학과, 원광고등학교, 의·약학계열 제외)

상담 및 문의전화: 학생부총합(의·치·약·포함) 063. 850. 5266, 학생부교과(일반) / 정시모집 063. 850. 5262, 일반대학원 교과과 063. 850. 5118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익산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현택 의원이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익산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임현택 익산시의원 차기 지방선거 익산시장 도전

익산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현택 의원이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임현택 의원은 2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익산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과 소통되지 못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일은 기초의원

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초의 시의원 출신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청년, 여성,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통축, 물의 축을 바꾸겠다"며 "환경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정주여건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정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변화의 물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서동축제 성공·코로나 극복 '무왕제례'

익산시는 서동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기원하는 무왕제례가 오는 5일 금마 서동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무왕제례는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주최하고 익산문화원이 주관한다.

무왕제례에서 초헌관은 정현을 익산시장 아현관은 유재구 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문진호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맡는다.

무왕제례에는 서동추태, 기수, 어패, 헌관 및 제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행렬단이 무왕루에서 서동축제 특설무대로 행렬하는 어패이온 과정을 거친다.

무왕제례는 국악기로 편성된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포례,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를 백제유등으로 재현하여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축제로 마련했다"며 "백제왕도 익산에서 열리는 서동축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오는 6일 개막해 28일까지 23일간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은파 물빛다리 노후 상관 정비 완료 이달부터 시민·관광객들 이용 가능

교각 강관파일·철재 구조부와 교대 등 도장보수공사

군산시는 대표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내 물빛다리에 대해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관 정비를 완료하고, 군산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전면 통제를 해제했다.

은파 물빛다리는 지난 2006년 개통된 이후 15년간 운영되는 동안 기존 상관 방부목의 노후로 인한 갈라짐, 패임, 임시 보수조치에 따른 달걀거림 현상 등 노후유발로 보행 불편과 안전감 저하 등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정비공사를 통해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하드우드 천연 목재데크를 설치해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고, 하부의 각관구조 데크틀과 상부의 데크바닥재 시공, 난간 지주(기둥) 높이 보강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유지관리 시



에는 부분적인 데크바닥재 보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출입통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각 강관파일 및 철재 구조부와 교대 등 콘크리트면에 대한 도장보수공사를 동시에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전면 통제 기간동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편을 감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물빛다리를 비롯한 은파호수공원이 군산시민의 힐링장소이자 관광명소화 되도록 유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민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 시각정보디자인공과 개설 50주년 전시회

원광대학교는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공과 학과개설 50주년 졸업전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시회 등은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2일 대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50년 역사의 기반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기획했다.

원광대 시각정보디자인공과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핵심 요소인 시각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그래픽디자인과 영상디자인으로 교육과정을 나눠 신문잡지, 서적, 포스터, 팸플릿, 포장 등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 매체 디자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컴퓨터그래픽스(CG)와 영상콘텐츠 제작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겨울철 한파대비 한파쉼터 정비 운영

군산시는 올겨울 매서운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 예정인 한파쉼터를 정비하는 등 한파 대비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에서 지정 한파쉼터는 총 446개소이며 시설유형은 주로 경로당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이다. 보건지소 3개소 및 파출소 2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54개소를 올해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15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쉼터를 운영 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한파쉼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대상은 기존 지정 한파쉼터 446개소와 새로 지정 예정인 54개소 등 총 500여 개소이며, 겨울철 한파쉼터가 대부분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병행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통합 안내표지판으로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고병민 기자

군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 의견 청취 나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및 제보를 받는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5일간 각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 및 제보를 받습니다"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또한 18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시정 전반의 대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의 제보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군산시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전화(450-5880, 5863)·팩스 및 방문 접수(민원상담관 10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11월 12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군산=한경봉 기자